

이재용 사면 여론에... 차·MB 사면 연결될까 ‘침묵하는 丈’

여당 일각서 ‘JY 특별사면’ 주장에
靑 “사면 검토계획 없다” 선 그어

JY 사면조사 긍정 69%, 부정 23%
차·MB 사면 찬성 43%, 반대 4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자칫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뒤 낸 입장과 동일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는지’를 묻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대답이다.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재용 사면 검토해야’ 요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 극복 차

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

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에게 조사한 이 부회장 사면 여부 여론조사(4월 24~2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6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3.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여부에 달린 듯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달리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는 찬성(42.8%), 반대(47.4%)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현재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물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은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딸기전용 항공기’ 운항... 수출 21% 꺾춤

농식품부, 싱가포르 行 88회 운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딸기 수출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항한 결과, 딸기 수출액이 1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주 4회씩 총 88회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투입했고, 이를 통해 전체 싱가포르 딸기 수출의 91%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출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 당시 체결된 운임 가격은 4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수출업체와 농가 물류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싱가포르 딸기 수출액은

1525만5000달러로 전년(1252만8000달러) 대비 2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싱가포르 고급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2~4월 집중 마케팅을 추진, 현지 생방송 판매 3분만에 고가의 한국산 딸기를 완판해 매출액 1만달러를 달성했고, 유명 셰프와 연계해 고급 디저트숍 딸기 신메뉴를 런칭하고 예약이 조기완료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12개소에서 한국산 딸기를 디저트용 식재료로 구매하는 등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만을 마련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딸기 수출단가는 1kg당 15.5달러로 전년(1kg당 11달러)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부겸, 청문회 쟁점 ‘라임펀드·공정선거’

국무총리 후보자 6~7일 인사청문회
野 “부적격 인사”... 공방 이어질 듯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시험대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만큼 김 후보자 인준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할 만큼 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 자산운용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피해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모르고, 이 과정에서 손해 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펀드에 가입한 지) 어떻게 아냐.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냐”고 반박한 바 있다.

과거 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후보자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관리할 수 있는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을 지냈고, 당대표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에 대해 언급한 뒤 “(김 후보자 지명은) 관련 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한 정파에 몸담았고, 정파에서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대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점,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한 사실 등이든 ‘도덕성 논란’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 앞선 서면 질의를 통해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내외가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사실도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 29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도입 등 대응 과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현 정부 부동산, 코로나19 대응 기조에 대해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게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기업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 완화

환경부, 내달부터 0.5%→0.1%로

6월부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이 기존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바꾸고,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요율에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이 포함된다.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제도

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건은 총 42건이다. 이 중 24건(57%)은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4건 중 22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받지 못했던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돼 기업의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자기부담금은 당초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 천연물 소재 개발

네추럴에프앤피와 기술이전 계약

한국식품연구원은 신회순 박사팀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천연물 소재들을 개발해, ㈜네추럴에프앤피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네추럴에프앤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GMP 1호 인증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과 R&D 시스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신회순 박사 연구팀은 흡연 및 미세

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발병 기전을 중심으로 5가지의 세포기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식물 및 천연물, 미생물 소재들을 평가했다. 1차 선별 후보소재에 대해서는 전식, 비염, COPD,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 악화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재검증해, 최종적으로 천연물 10종, 미생물 2종, 단일성분 1종의 소재를 선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